

축문 상의 연호 사용 - "유~세차 vs 유 신라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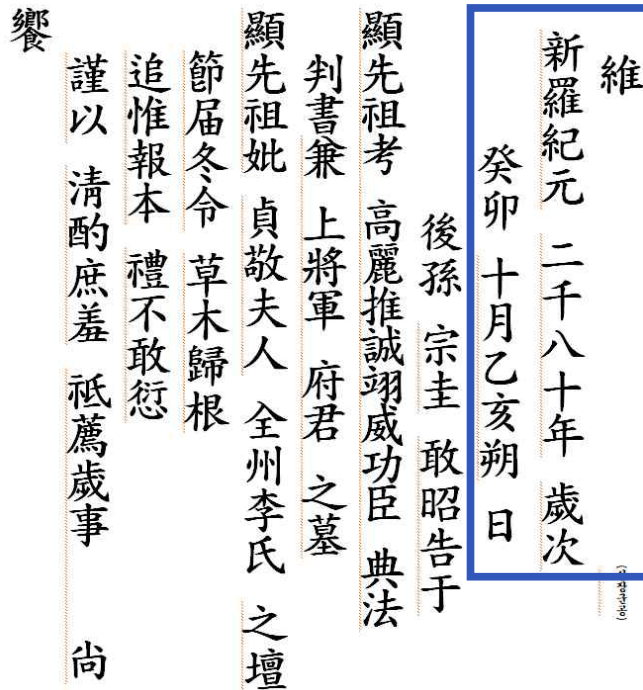


그림 1 2023년 두응촌 세일사 상장군공 묘제 축문

축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세차” 이렇게 쓰고 “유~세차”라고 유를 늘어뜨려 길게 읽는다.

우리 박씨가문에서는 대개 “유 신라기원 xxxxx년 세차 xx(연간지)”라는 식으로 유와 세차 중간에 신라기원(기원전57년)기준 연호를 사용한다.

다른 성씨들에서는 유와 세차 중간에 중국 원나라나 명나라의 연호를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가 1636년 병자호란이 나고 청나라가 세워지면서부터 청나라의 연호를 넣어야 하는데, 이전까지 명나라를 섬기던 조선의 유학자들 특히 척화파들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울며겨자먹기로 잠시 청나라연호를 넣어 쓰다가, 후에는 아예 빼게 되었는데, 그럴 경우 유와 세차 중간에 라임이 부자연스러워졌다. 하여 유를 길게 하여 유~~ 라고 한 것이다. 아예 유를 첫줄에 쓰고 세차를 둘째 줄에 적었다. 그러다가 조선말 다시 광무연호를 잠깐 사용한 일이 있었지만 이미 거의 모든 백성들의 제사양식은 유세차로 굳어진 뒤였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 박씨문중의 경우는 이천년 넘게 신라기원 연호를 사용해오고 있었으며, - 물론 중간에 제사가 끊어졌었던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박씨 안의 본관마다 다른 예법을 적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 지금에도 그 전통을 이어서 “유 신라기원 2080년 세차 계묘 xxxxx” 식으로 축문을 쓰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앞으로도 이를 계승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